

AUTHOR 허순길

TITLE 개혁교회와 그 생활

IN 월간고신

(8, 1983): 37-39.

(10, 1983): 30-32.

(12, 1983): 24-26.

(2, 1984): 45-48.

(3, 1984): 36-40.

(4, 1984): 50-54.

(9, 1984): 50-54.

양성시켜 복음과 함께 수출하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째, 그외에 방송선교나 기도의 지원을 끊임없이 계속함으로써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 중인 공산권 선교 혹은 중공 선교단체 등은 공산권 교회와 지하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 오히려 정보를 누설하여 도리어 피해를 주고 있는 면과 물질적 공급만의 선교 활동으로 교회와 신자를 분열시키는 불상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당장의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조용한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장기적인 선교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2) 제안

본 공산권 선교연구 위원회가 교단 산하에 몇사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연구와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과 자료와 연구위원의 부족으로 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금번 총회에서 본 위원회를 선교부에 통합하여 선교부의 부설기관인 선교개발 연구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공산권 선교연구 위원회의 활동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나 실제로 활동을 선교개발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들이 대신하여 연구위원들이 선교의 제반문제를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과 기타 공산권 포함)

둘째, 중공선교 내지는 공산권 선교는 단순한 선교전략 만으로는 불합리한 공산주의 사회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가 뒤 따라야 되는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시급히 요청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의 복잡한 경제, 정치, 사회문제에 의한 이데올로기 문제와 현실사회에 심각하게 등장한 현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한국관 해방신학인 민중신학 등에 올바른 성경적 신학적 해답제시를 해야 할 사명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네째, 현재 제3 세계선교의 일반적인 경향은 기독교와 마스주의의 결합인 해방신학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회가 혁명의 기지가 되는 불행한 사태도 일어났거나 앞으로도 예상된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가 하나님의 택자로 인정되는 가난한 자의 신학이 등장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깊이있는 연구위원들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건강과 그리고 생명의 즐거움

당신의 건강을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건강하다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건강은 우리 유일한 존재들에게는 구원대요로 가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돈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상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를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기 만드신 것을 바라보셨는데 그것들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 특별기획/개혁주의란?

개혁교회와 그 생활(I)

허 순 길박사
현재 호주에서 활동중

1. 머릿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 한다. 교회가 저상에서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러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교회의 이상과 목표는 되어야 한다(엡 4:13-16). 여기에 저상교회의 사명이 있다.

고려파 장로교회는 한국교회가 교회와 생활면에 순전성을 잃었을 때에 참교회의 표시를 찾고 지키기 위한 개혁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출발이 진리를 위한 사랑과 충성, 자기 개혁을 위한 민감한 회개의 생활로 아름다웠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가야 한다. 개혁 이후 30년의 역사가 흘렀다. 우리는 고려파 역사를 새로읽고, 고려파 교회가 얼마나 개혁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장로교 교파들 속에서, 참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자기 존재의 특질을 파수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자기 존재의 특질을 잃을 때, 존재의 가치마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년 초, 외국에 유학을 나온 한 후배요 옛 제자로부터, 자기 교회를 근심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받았다. 그는 한국 고려파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었다. "교수님...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신사참배 거부

가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에 무슨 의의가 있으며,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지금 다른 점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흔히들 우리교회 목사와 장로들 중에는 통일교와 연루된 사람이 없으니 낯지 않느냐고 교회의 존재 의의를 설명합니다. 이제 고려파라는 뼈다귀는 역사적 유물로 화하려는 순간입니다. 왜 그 아름다운 교회의 출발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있는 젊은 세대엔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이 글을 읽고 잠시나마 해외에 나와 있는 선배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현재 이같은 생각을 갖는 분이 이 글을 쓴 젊은이 뿐일까? 이렇게 불만을 솔직히 토로하는 후배를 책망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미래의 역사를 담당할 이 후배의 마음에서 고려파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읽으면서 흐뭇함을 느끼고 감사할 뿐이다.

고려파 장로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여러 시련을 겪어 왔다. 합동과 환원, 분리 그리고 재회 등이 그것이었다. 교회의 시련은 진리파수와 생활의 순결을 위한 개혁과 동기에서 맞게 될 때, 시련으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고, 교회가 평화와 성정의 결실을 볼 수 있게 된다.

교회 개혁의 표준은 언제나 교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구원,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절, 벨직신앙고백 6장)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그의 말씀을 따라 교회, 예배, 정치생활 등을 확립하고 개혁해 가야 한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심각히 묻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고려와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개혁해 가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교회가 나아 가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곳 개혁교회의 생활을 소개하려 한다.

개혁교회 생활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생활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에 있지는 않다. 다만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몇 차례의 개혁을 겪어 온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생활을 확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현 장로 교회의 생활과 비교 연구의 기회를 마련하고 "개혁해 가는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교회사적 입장에서 개신교 세계는 영국교회와 루터교계 및 개혁교계로 나뉜다.

그리고, 개혁교계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로 다시 나누게 된다.

개혁교회는 존 칼빈(1509-1564)에 의해 서 효시를 이루고, 처음 스위스, 불란서, 독일, 화란 등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칼빈의 영향을 받고, 오늘날까지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온 것은 화란의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다. 화란은 일찍부터 칼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개혁교회가 세워졌으며 로마교

회로부터의 심한 박해가 있을 때 신실한 성도들이 독일, 영국, 제네바 등 여러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화란 개혁교회는 피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의 대표들이 1571년 독일 북쪽에 있는 엠덴에서 첫 총회로 모여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회 문답서와 개혁교회법을 교회의 표준문서로 채택함으로써 기초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본국에 로마교회 세력이 몰려가고 나라가 독립되면서 개혁주의 교회는 자리를 견고히 잡게 되고 개혁주의 교회가 국가의 중심 세력이 되어 성장해 오게 되었다.

장로교는 존. 낙스(1513-1572)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에서 효시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신앙박해가 있을 때에 제네바에 있는 영국인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초청을 받아 시무하던 중 칼빈과의 교제를 두텁게 가졌고, 교리와 생활에 대한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1559년 그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초안하고 그의 영향아래 개혁이 진행되어 1560년 첫 총회를 개최하고, 신앙고백서와 제일 권징서를 교회 표준문서로 받음으로 장로교회의 기반을 두게 되었다. 그 후 칼빈과 낙스의 영향이 영국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영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대회(1643-1649)가 모였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정치 표준서 등을 작성하여 받게 됨으로 미래의 장로교회 세계를 위한 기반이 완전히 놓여지게 되었다.

이상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그 시효의 역사적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상호관계는 혈육을 같이한 형제의 관계에 비할 수 있다. 제네바를 방문한 분들은 이 관계를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네바대학 캠퍼스벽에 존. 낙스, 파렐, 칼빈, 베자의 기념상이 나란히 새겨져 있음을 본다. 이 양

교회는 교회생활에 혈육처럼 귀중한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같은 기반으로 하고, 다른 민족과 역사를 배경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렇게 양교회가 근본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상호간의 밀접한 접촉과 협력이 언제나 있어 왔다. 특별히 교회가 증대한 위기에 직면했거나 대사를 행할 때, 주의 참교회 건설과 개혁을 위한 협력에 상호 이바지하게 되었다. 그 한 예로 대륙의 교회(화란 개혁교회)가 한 때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하는 알미누스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위기에 접하게 되었다. 이 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인 돌트(Dordt) 총회(1618-1619)는 영국, 독일 등 여러나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그의 교리를 거절하고 그를 경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돌트 총회 이후 영국에서 교회 개혁의 거사를 위해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에 돌트에서 알미누스를 정죄하고 받은 선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속에 돌트선경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당시 화란의 개혁교회는 영국교회 개혁에 큰 관심과 격려의 글을 보내었다.

오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미 선교를 통하여 온 세계에 산재해 있다. 역사상 개혁교회는 대륙에서 효시를 이룬 개혁주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영국 등의 개혁주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러나라에 산재한 양교회가 그 환경을 따라 교회생활의 양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중요한 역사적 전통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 오늘 국제교회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 접촉과 신학적인 대화가 빈번해짐으로 같

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지켜온 양교회 사이에 동질성과 다양성을 깊이 논하게 되었다. 이 대화는 서로가 이루어 온 전통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충함으로써 교회의 건전한 개혁과 건설을 위해서 크게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이웃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도 종종 양교회간에 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양교회의 차이를 논하고 일치점을 구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상이한 역사의 배경을 가진 교회가 서로 병존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대화에 관심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화란에서 모인 개혁교회 국제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동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 대화와 토론을 상호존경과 인내심을 가지고 펼쳐가는 한 주의 참된 교회개혁과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인은 양교회의 교리적, 정치적 차이를 논하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먼저 개혁교회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교리와 그 교리가 어떻게 교회생활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교회생활을 소개하려 한다. <계속> ❀

<친구와 교제의 기쁨>

우정은 슬픔을 나누며 기쁨을 더해 줍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대면하여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 하였읍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했읍니다

많은 친구는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으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가깝습니다

개혁교회와 그생활(II)

허 순 길박사
현재 호주에서 활동중

1. 교회관

교회관은 신자들의 교회생활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다. 그 이유는 목사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설교하며, 신자들을 교육하느냐에 따라 신자들의 교회생활 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교회는 교회관에 대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들 역시 교회관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대신학 및 현대교회 일치운동의 영향을 받고, 전통적인 교회 교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초월한 W.C.C. 적인 교회 일치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순결한 교회” “참교회”란 어휘를 낡은 시대의 것으로 폐기해 버렸다. 그 외에 오랫동안 개혁교회의 전통을 지켜오던 여러교회들이 복음주의라는 희미한 표어 아래 조직된 초교파 기구들에 가담하여 협력함으로써 자기교회의 정체성을 흐리게하며, 신자들의 지도에 혼선을 불러들이고 있다. 오늘의 이런 현상은 현대신학의 일반경향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평면주의로 부터 오는 직접 간접의 영향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가 바른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신자를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른 교회관이 없는 교회는 역사 세계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없다. 바른 교회관이 없는 교회는 환경의 변화를 따라 적응해 가다가 역사의 표면에서 살아질 뿐이다.

한국 고려파 장로교회는 초창기에 다소 좁은 교회관을 가진 것으로 비판을 받고 오해를 받았었다. 신자들 중에는 고려파 교회만이 “참교회”며 고려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까지 생각한 때문이다. 이는 역사의 배경을 생각할 때 이해가 가게 된다. 단순하고 진실한 신자들은 당시 한국장로교총회가 다수의 세력을 배경으로 진리를 위해 순교의 대열에 섰던 개혁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들을 총회에서 제명하자 주님께서 그런 총회에 속한 교회와 함께 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충성된 종들을 따라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고 진리를 외면한 교회를 떠나 뫼친 신자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배운바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기 보다 사단의 공회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신앙고백서 25장 5절)는 말을 생생하게 상기하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자기 교회를 절대시하거나 다른 교회를 쉽게 이단시 해버리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파수하고 참교회(True Church)의 모습을 지켜 나가려 할 때 교회는 외부로부터 “배타주의자들” 혹은 “완고한자들”이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딤후 3:15) 교회가 진정 “진리의 기둥과 터”로 나타나 안팎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역사 속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이제 개혁교회가 가진 교회관과 어떻게 이것이 교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완전한 개교회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에큐메니칼 신경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의 보편교회”를 고백한다. 이 교회의 주요 왕은 오직 그리스도 한분 뿐이다.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는 친히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한교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 이 “하나의 교회,” “한분의 주”의 잔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들이 다같이 고백한다.

그런데 개교회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차이를 보인다. 장로교회는 한 교파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개교회를 그 하나의 교회 부분으로 간주함으로써 지교회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개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교회로 보고, 교파는 이 완전한 개교회들의 연합체로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은 특별히 교파의 명칭을 기록하는 방법에서 잘 들어난다. 곧 장로교회는 교파의 명칭을 기록할 때 교회라는 단어의 단수를 사용하나 개혁교회는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어로는 단수와 복수의 취급에 있어 구별이 분명치 않은

나 영어에서는 잘 들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장로교는 “한국 장로교회”라는 교파 명칭을 쓸때 단수를 사용하여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쓰고 개혁교회는 “호주 자유 개혁교회”라는 교파 명칭을 쓸때 “The Free Reformed Churches in Australia”라고 쓰게 된다. 이렇게 개교회를 보는 견해의 차이는 양교파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 견해의 차이에서 보게 된다.

개혁교회는 개교회의 독립과 완전성을 믿는 원리 위에서 출발되었다. 이는 개혁교회의 창립 총회였던 엠덴에서 모인 총회(Emden, 1571)가 교회 연합생활의 지침서인 헌법을 이 원리 위에 기초하면서 찾을 수 있다. 이 교회 헌법의 제1조에 전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로마교회에서 도시의 큰 교회가 지방의 작은 교회를 지배해 온 교권정치를 배격하고 개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혁교회는 이 조문을 헌법의 결론 부분으로 옮겨 오늘날까지 이 원리를 보존하고 있다.

개혁교회가 개교회의 독립을 주장한 것은 단순히 교권정치를 배격하는데 있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약성경에 교회란 말이 110번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100번 이상이 개교회(또는 가정교회)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가 보편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마 16:18과 주로 에베소, 골로새서신). 특별히 성경

중에 사용된 교회란 말 가운데,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단수를 사용한 뚜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개교회들은 각기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교회들이었다. 어느 교회도 다른 이웃교회를 지배했거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예루살렘교회가 어느 면에서 모든 교회와 모교회라 할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안디옥교회나 에베소 교회등을 지배하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 초두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전 1:1)라 부르고 그 교회 자체가 범죄자에 대해 권징할 것을 촉구함으로(고전 5장), 그 교회의 특성을 분명하게 했다.

이 개교회의 독립 및 완전성의 원리는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신 주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일곱교회들에 대하여 각각 칭찬과 책망을 하므로 각교회를 개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개교회가 왜 독립된 완전한 교회인가? 그 이유는 개교회는 혹 그 규모가 작을찌라도 “보편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기본요소는 신자들과 직분이다. 신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자들을 양육 감독하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자들이 있을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것이다.

개교회가 독립된 완전한 교회라면, 교회의 일치성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또 개혁교회가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독립교회주의(Independentism 혹은 회중교회주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문게 될 것이다. 이 양교회

가 가진 교회관은 서로 다르다. “독립교회”는 교회의 일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모든 교회가 구속을 받는 공동신앙 고백서를 갖기를 원치 않으며 교회 상호간의 감독을 싫어한다. 그 결과 행정상 절대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개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교회 상호간의 일치와 협력을 교회의 사명으로 안다. 그 이유는 모든 참교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혁교회는 교회 일치성의 기반을 어디에 두는가?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요약인 신앙고백서와 교회 연합생활의 규칙으로 성경적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 교회법에 두게 된다. 모든 개교회가 이 표준문서들을 받아들임으로 서로 자매관계를 이루고 교회의 일치성을 들어내게 된다. 이 연합체를 우리는 교파라 부르기도 한다.

완전한 교회로서의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혁교회 생활의 강점이 어디 있는가?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할때 독립교회주의의 경향을 띠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다르다. 개교회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바로 의식할 때, 전체 교회에 대한 의무에도 민감하게 된다. 이는 실제 개혁교회들이 서로 얼마의 협력적인가를 보는데서 알수 있다. 그리고 개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식은 개교회로 하여금 그 지역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게 만든다. 개교회는 그 지역의 어두움을 밝히는 촛대이다(제 1:12,20). 그러기에 개교회는 그 지역을 밝히면서 서거나 교회와 빌립바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직분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충성을 기울이게 된다.

참교사의 자세

(마 17:1~8)



박정원
연합교회목사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 베드로로 부터 신앙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시며, 구약의 두 증인 인물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속 안주하길 원하여 주님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도 놀랍고 두려워 제자들은 엎드리어 멀고 있었습니다. 너무서 제자들을 일으키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까이 오셔 조금전 황홀했던 광경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교자 부름받아 나선 교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의지하여 참교사의 자세를 살펴 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참교사는 먼저 확실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1-3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 잘 모르면 불안 합니다. 길을 가더라도 방향과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걸으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실망치 않고 끝까지 지로 영혼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사도 신앙의 좌표가 분명하지 못할 때 어려운 환경에 부딪치게 되면 쉽게 좌절하거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왜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바로 서지 못

개혁교회와 그 생활 III

“ 순수한 복음의 증거와
성례, 권징의 올바른
시행은 참 교회의 표지이다 ”

허 순 길
호주자유개혁교회목사

(2) 교회의 분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는 교회 선택에 신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사이비한 무수한 단체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참 교회가 어느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참 교회”라고 말할 때 이를 완전한 교회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 없다. 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지상교회에는 언제나 위선자들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는 언제나 허물과 죄가 있고 이것들이 종종 드러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가끔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다. 그래서 그의 지상생활은 다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생활을 시작

한 것에 불과하다. 참신자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 사유의 은혜를 받으며, 거룩함을 입는다. 여기에 지상교회 신자들의 위로가 있다.

이와같이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그렇기에 교회라 부르는 모든 지상에 있는 단체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는 태도에 근거한다 하겠다. 주께서는 거듭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 참 교회를 분별하는 일은 영적생활의 안녕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문제의 외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참 교회를 분별하고 그 교회에 가담하는 일은 신자생활에 극히 중요한 것이다.

어거스틴은 일찍이 아벨의 교회와 가인의 교회를 구별했다. 빌링거(Bullinger)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소돔 또는 바벨론이라 부를수 있는 사탄의 교회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를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구별하였다. 개혁교회는 칼빈의 구별의 전통을 따라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눈다. 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참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로 구별할 때, 교회안에 있는 위선자를 표준해서는 안된다. 지상 교회에는 언제나 구원받지 못한 위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마 13:3-9, 24-30). 참 교회의 표지는 객관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라야 한다.

개혁교회는 그 신앙고백 제 29장에 다음과 같이 참 교회의 표지를 “참교회를 알게 되는 표지는 다음과 같으니, 그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례를 순수히 거행하며, 죄를 범할때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세가지를 들고 있다.

순수한 복음의 증거는 개혁주의 교회 생활의 핵심이다. 이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되찾게 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바르게 증거하는 강단에 있다. 복음이 강단에서 바로 증거되지 않고 거짓된 교리가 소개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성례(세례와 성찬)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다. 성례는 보고 체험하는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기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성례는 거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게끔, 인간의 자유에 맡겨진 제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교로 성례를 등한시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명령을 등한시 하는 일이 된다. 또 교회의 권징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제정해 주신 제도이다. (마 18:15-18). 이는 교회의 진리의 파수와 생활의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상의 세표지는 참 교회를 구별하는 객관적인 표준이다. 원래 칼빈은 첫째 두 표지만을 참 교회의 표지로 언급했다. 권징은 첫째 표지인 순수한 복음 증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일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교회 신앙고백을 작성한 분은 교회의 권징을 참 교회의 세번째의 표지로서 덧붙였다. 개신교 교회를 가운데 개혁주의 교회가 교회적으로 진리를 가장 순수히 파수해 오고, 기독교 생활에 철두철미한 것은 교회 권징이 책임있게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참 교회와 그 표지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규정적 원리만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심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기 보다 사탄의 회가 되었다”는 표현과 “로마의 교황은 적 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란 말은 신자들에게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을 원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참 교회를 분

별하고 선택하는 일에 매우 부정적이다. 많은 신자들이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분계 선상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지도자의 입장에서의 이런 생활 자세는 참된 교회 건설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들은 이 표지를 따라 참 교회를 분별하는 것은, 교회의 분류와 교파사이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사고의 경향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건설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열을 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교리의 차이를 무시하고 교회의 일치만을 추구하는 W.C.C. 적인 에큐메니칼 운동과 그이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이 있다 하겠다.

끝으로 바른 교회관에 대한 교회의 교육과 지도가 신자의 신앙생활과 교회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신자들이 바른 교회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때, 그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의 신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다. 그는 어느 곳에 가나 참 교회를 분별하여 찾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줄 안다. 이는 곧 그 신자의 신앙생활의 안녕과 참 교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곳 개혁교회를 시무해 오면서 개혁교회 신자들이 신앙면에서 방향없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 보아 왔다. 움직이기 전에 그곳의 참 교회의 존재 여부를 혹은 설립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일단 옮겼을 때는 그 참 교회에 회원이 되어 자기 의무를 다하는 생활을 한다. 오늘날 이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해 가는 수가 늘어가는 한국의 형편을

생각하고 교회의 교회관의 확립과 지도가 매우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된다.

또 신앙인의 교회에 대한 바른의식은 후세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한다. 교회는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교회생활이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는 대대로 개혁이 되어가고, 그 유산이 전승 되어 가야 한다. 이런 역사적 사명의 수행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살때만이 가능하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분별을 함으로, “교파주의” 혹은 “분파주의”로 오해를 하거나 오해 받을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참된 교회”를 분별하여 선택하고 이 교회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일이 결코 “교파주의”나 “분파주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피로 사신 그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건설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로마교회가 주의 말씀을 떠났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참 교회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들이 참 교회가 아닌 배교의 단체로 부터 떠났을 때에 이들은 분리주의자도 교파주의자도 아니었다. 이들은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 이 교회의 건설에 충성한 것이었다. 진리를 희생해 가면서 교회의 일치운동을 펴는 거짓된 에큐메니칼 시대에 사는 오늘의 개혁주의 신자들에게 “참 교회”를 분별하는 지혜와 그 교회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신앙적인 용기가 더욱 요청된다. ❀

-계 속-

특별기획

제5계명에서
비추어 본
부모와
자녀관계



이 보 민
교신대학교수

십계명에는 우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바가 언급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계명으로만 보인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5계명은 결코 일방적인 계명 즉 자녀만이 지켜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이 아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계명 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리가 없다. 아! 저 계명은 아이들만이 들을 것이니 어른인 나는 전혀 무관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저 교훈은 여자를 위한 것이니 남자인 나는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의 제5계명 역시 결코 자녀들만 듣고 외워서 지킬 계명이 아니라 믿는 자이면 그가 자녀이든, 부모이든 누구든지 들어야 할 계명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윤리적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 주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제5계명이다.

부모를 가진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우선 형식적으로는 부모를 가진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즉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자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에게서 부터 나오는 계명인 것이다. 이 계명은 부모 자신이 명하는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즉 부모를 보아 가

4. 성실과 정확을 생명으로

성실과 정확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이 어디 있으랴만 출판인은 유독 성실과 정확을 생명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300 페이지의 책 한 권을 만들어 내자면 200자 원고지로 800장에서 1,000장에 이르는 원고를 인쇄받으면서 제작작업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160,000자 내지 200,000자를 쓰거나 타이핑한 원고에 오자나 틀린 통계 또는 잘못된 표현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을 원고교정 또는 원고정리라고 하는데 이 작업은 제1차과정에 불과하다.

제2차과정은 활판의 경우 그 원고를 보고 문선(文選, 활자를 원고내용대로 주워모으는 작업)을 거쳐 식자(植字, 문선에서 모아온 활자를 레이아웃(조판지정)에 따라 배열하는 작업)한 것을 몇차례 교정하는 작업이다. 그 여러 과정 가운데 어느 과정에서든지 아차하는 실수가 있게 되면 독자들은 잘못된 지식의 전달을 받게 된다. 어찌 기독교 출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하면서 정성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을 생명으로 삼지 않을 수 있으랴.

5.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신앙과

신행일치에의 안내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믿고 기도하며 이미 이룬 줄 알라고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행되어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험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을 믿을때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일시 넘어질 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면 험이 샘솟고 칠전팔기의 용기가 솟아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대로 행하는 한 사람의 글을 엮어서 독자로 하여금 신행일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출판인의 할 일이라고 믿는다.

6.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야

열린 마음은 겸손할 수 밖에 없으며 기엔 진리가 찾아 들어가게 마련이다. 채근담에 “마음은 비어야만 진리가 들어가고, 한편 마음은 가득차야만 물욕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했듯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는 항상 간사함으로 경청하고, 진리에의 소신은 확고히 가지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지상목표는 문서선교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기독교 출판인의 지상목표는 부귀나 세상 영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문서선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출판인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고 출판인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는 독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책을 기도하는 자세로 성실히 그리고 정확히 제작하여 많은 사람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

특별기획
개혁교회와 그 생활 ④

교회의 직분 (I)

허 순 길
호주자유개혁교회목사

1. 유일한 직분자 그리스도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신자들에게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느냐고 물으면 누구나 집사, 장로, 목사 세 직분이 있다고 쉽게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자이냐고 물으면 답을 하기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는 믿으나 그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밝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개혁교회의 직분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가 되시며 교회내의 모든 직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증한다는데 근거를 하고 있다. 성도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른다. 사도 바울이 종종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롬 1:1, 딤후 1:1). 목사가 그리스도의 메세지를 말아 증거하는 특권을 가졌기에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일이다. 그런데 이 칭호를 목사에게만 적용할 것인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는 집사, 장로, 목사 모든 직분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아름다운 칭호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직분이 교회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의 교회를 위해 그의 직분을 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직분자가 되신다고 했다. 어떻게 그가 직분자가 되시는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타락한 아담의 후예중에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둘째 아담으로 오도록 예정이 되신 것이다. 이는 곧 그가 직분자 메시아로 세우심을 입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메시아'의 뜻은 '기쁨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희랍어의 '그리스도'란 칭호에 해당된다.

인간 구원이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잃은 직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창조를 받았다. 곧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만물을 다스리는 의무를 진 직분의 소유자였다. 곧 이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 타락함으로 이 놀라운 직분을 이행할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

린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이 세적분의 회복에 있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적분을 진 삼중 직분자로 오신 것이다.

그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직분자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이스라엘)를 세적분을 세워 다스렸다.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세워 그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신 것이다. 그러나 구약 시대 교회에 있었던 세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예표한 것이었으며 그 그림자였다.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직분자로 오신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을 입고 사역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요 7:29, 8:26). 그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고 하였다(요 8:42).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사명을 맡겨 보내신 직분자였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불렀다(3:1)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부른것은 그가 직분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데 있다. 직분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의 직분을 완전하게 이행하셨다. 그는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시하고 가르쳤으며(신 18:15, 행 3:22, 23), 자비스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셨으며(히 7:1, 11, 18), 왕으로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심을 완전히 들어 내셨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는 직분자 메시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을 밝히신 것이다. 이에 구약 시대 교회에서의 세적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이상 구약 시대 교회가 가진 직분을 가지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신약 시대의 직분의 기원과 사명등을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 등에서 찾으려 한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약 시대의 직분의 기원과 의무등을 구약 시대의 직분에서 찾게 될 때는, 오늘 로마 교회가 범하고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되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셔서 구약 시대의 예언과 성전의 모든 의식 제도를 단번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교회의 직분의 기원과 직무 등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직분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 그러나 그의 직분적 활동이 이로서 그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승천하신 그는 하늘에서도 그 직분을 가지시고 완전하게 직임을 이행하고 계신다. 하늘에서도 그는 '그리스도'(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는 직접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자기 교회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는 지상 교회의 모든 참된 신자들이 향유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이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직접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 곧 어떤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직무를 지상에 이행해 가실 수 있다. 이는 그가 전능하신 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상 교회를 위한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봉사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의 직분을 봉사할 자를 불러 세우심으로 이 직분자들의 방편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 어떻게 직분자를 불러 세워 쓰시는지를 대강 살펴 보게 된다. 그는 먼저 그가 직접 부를 제자들을 보내어 그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하시며 그들을 보내셨다. 이들은 주의 특사로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의 대행자로서 그의 교회를 위해 수종들었다. 곧 그들은 처음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는 삼중직을 직접 이행하였다(행 2:42~47, 4:33~35, 6:2).

그러나 교회가 성장 확장해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내에 합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을 불러 세워, 사도가 담당해온 직무를 나누어 수종들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 행전은,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상에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직분을 세워 그 교회를 돌보아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주께서는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의한 환경의 요청을 따라 자연스럽게 직분자들을 세워 직임을 분담케함으로 자기 교회를 돌보신 것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커짐에 따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과 규제하는 일을 다 감당키 어려웠다. 이 결과 주께서는 규제하는 일을 맡을 직분을 따로 세우게 하셨다(행 6:1-7). 이에 여태까지 사도가 담당해 오던 제사장적 사역의 사역이 집사의 직분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성장해 가고 교회가 이고니온 안디옥 등 여러 지역에 까지 설립되자 사도들이 이 모든 교회들을 다 다스리고 인도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교회를 처리하는 왕적 사역이 장로들에게 맡겨지게 된 것이다(행 11:30, 14:23). 나아가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던 사도들이 차츰 세상을

떠나고 교회내에 거짓 스승들이 차츰 침투하게 됨에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바로 보존하고 가르칠 직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직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이 밝혀 주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처음 교회들은 장로들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차츰 이 직분의 전문화가 요청되었을 때에 가르치는 장로들을 따로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직분을 '목사와 교사'(엡 4:11) 혹은 가르치는 장로(딤후 전

5:17)라고 부르게 되었다.이로서 선
지자적 사역인 가르치는 직임이 가르치
는 장로(혹은 목사)에게 맡겨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이상과 같이 교회에 직분이 세
워진 과정에서 어떤 인간조직체의 자연
적인 제도의 발전같은것을보지 않는다.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 되신 그리스도께
서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직분을수종들자들을 불러 세워 자기 백
성을가르치시고, 돌보시며, 인도 하시
는사실을보게 된다.

직분자들을세움에 있어서 당회와 교
회 신자들이 투표를하는등관련을 지운
다. 그러나이제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
시는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이 모든과
정의 배후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
는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지금 하늘
에 계신다. 그러나우리는그리스도께서
한순간도지상에 있는그의 교회밖에 계
신다고 생각해서는안된다.

지금도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을목사로, 어떤 분
을 장로로, 또 어떤 분을집사로 불러 세
워 그의 백성을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신다. 그래서 바빙크 박사(H.Bavinck)
는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아름다운 말로 결론을지었다. "그
리스도는 목사직을 통해 가르치시고 장
로직을 통해 다스리시며, 집사직을 통해
그의 양무리를 돌보신다.

그리고이 세직분을 통하여 그가 우리
의 대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이 되실것을보여 주신다." (Gereformeerde
Dogmatiek IV. 371)

엄밀한 뜻에서, 교회 안에는한분 예
수 그리스도의 직분만이 있다고 할수 있
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한분 그리스

도의 직분을 수종드는데 의미를 가진
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이란오로지 섬
기는 직분이다. 그러므로개혁주의 교
회는교회의 직분자들사이에 직무에 대
한선명한 구별은하지만 고전적인 상하
의 구별은철두철미 배격한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요,
유일한 직분자이시며, 모든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는 단순히 그의 종인 것이다.

<편집자주>

허순길박사님의 "개혁교회와 그생
활"이 3회에 걸쳐 서론과 교회관을
끝내고 이번호부터 "교회의 직분론"
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뜨
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월간고신 과월호 판매

창간호부터 1983년 12월호 까지
50% 할인하여 판매하오니 미처 구입
하지 못하신 분은 이 기회를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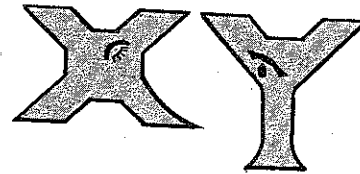
월간고신사

T. 27-0045

특별기획

첨단과학

유전공학의 시대에



한복기
부산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근무

오늘날 학계,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에게도 관심과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물공학은 불가침 성역인 생명의
신비에 과학적 메시지를 대는 도전이라
고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그 발전과정
과 이러한 과학적 발달에 대한 신앙인
의 태도에 대해 나의 회미한 시력으로
감히 얘기해 보고자 한다.

유전공학이란?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함에 따라 그
에 대해 알고자 하여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노력의 근원은
선사시대의 꽤 오랜 옛날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고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과 기구를
개발이용하여 많은 생명현상에 대해 해
명해 나가고 있다.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생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
며 인간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풍요롭
게 하고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
는데 기초를 둔다. 17세기 현미경의

발명에 이어 로버트 후크(Robert Hooke)
에 의해 세포가 발견되었고 19
세기에는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
및 기능적 단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동물과 식물의 몸은 수많은 세포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며 각 세포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니며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각 세포들이 지닌 유전정보는
동일하며 DNA량도 동일하다. (DNA
란 유전정보를 지닌 유전물질로서 핵
내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DNA상
에 존재하는 유전정보에 대한 탐구의
욕이 DNA연구를 시작케 했는데 DNA
는 당(Ribose)과 인산(Phosphate)
및 4종류의 화학적 염기(base)로 이
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195
3년에 왓슨(Watson)과 크릭(Crick)
은 이들이 이중 나선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DNA는 나
선을 따라 배열된 4개의 염기의 배열
상태에 따라 각각 특이한 단백질 합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DNA는 세
포분열시에 복제되어 모세포와 동일한
양의 유전물질이 다음세대 세포에 전달

교회의 직분 (II)

허 순 길
호주자유개혁교회목사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이다. 이때 목사는 그리스도 교회의 양무리를 봉사하는 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인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종인 것이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되었다”고 하였다(고후 4:5). 목사는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종이니 만큼, 그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소 명

개혁교회는 그 헌법에 “누구도 법적 인 부름을 받지 않고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Art 2). 이 원리는 모든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 이에 대한 명문이 없으나 직분을 다루는 조문에 이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근년에 여러 보

수 장로교회들은(미정통장로교회, 미장로교회등) 종교개혁이후 계속된 성경 연구의 결과 더욱 분명해진 교회의 기능과 직분에 대한 교리를 따라 교회 헌법을 대폭 수정하여 받게 되었다. 미 장로교회가 새로 받은 법은 목사직의 소명에 대하여 “특별히 설교를 위한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부름을 받아 수련을 받은 장로들만이 가르치는 장로(목사 : 필자주)로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7:1).

왜 목사가 법적으로 교회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가?

개혁교회가 이를 중히 여기고 법적으로 규정하게 된 동기는 개혁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종교개혁시대에 로마교회의 교권에 대한 반동으로 많은 자칭 설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로마교회를 떠난 옛 신부들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연구 및 설교의 자유

를 부르짖고 청증이 따를 때에 자유롭게 설교하게 되었다. 이들중 어떤 이들은 교회의 감독과 시험을 무시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이에 교회는 교회의 교리의 순정과 직분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부름을 받을 때만이 직분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게 되었다. 이런 자칭 설교자에 대한 위험은 과거에 속한 것만은 아니다. 가까운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 예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해독을 끼쳐온 신흥 이단종파들의 설립자들은 대부분이 자칭 설교자들이다. 오늘 이들 이단종파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한국 교회의 손실은 지난날 교회가 직분과 직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지 못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 목사의 직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행사해야 한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려졌다(골 1:7, 고후 5:20).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권위로나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났으며,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였다(히 13:17, 살전 5:13).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파송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그리스도)가 사도로 ...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고 한다(엡 4:11). 누구든지 부름을 받아 파송을 받지 않는 이상 설교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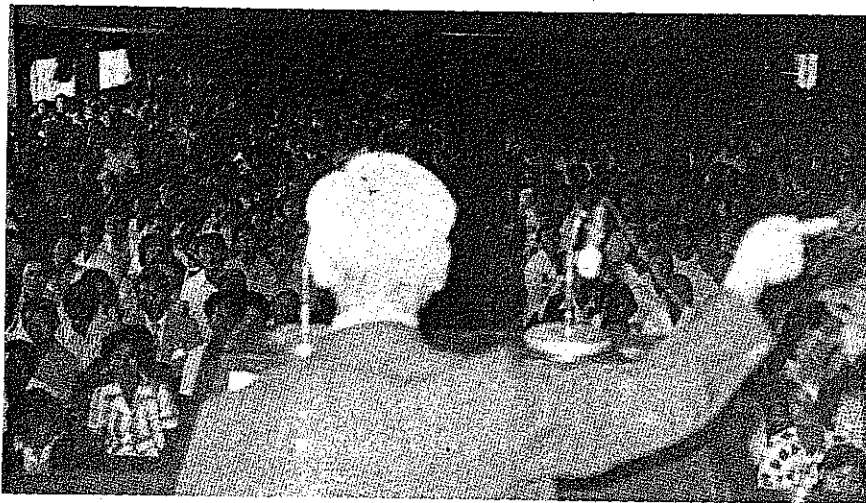
나타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지 않고, 장로나 집사로 등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교자로서의 목사의 직분은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럼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 줄을 알게 되는가? 이에 일반적으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말하게 된다. 내적 소명이란 복음 증거에 생을 바치기 위한 소원을 갖게 되고, 이 일에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길이 순탄히 열리게 됨을 말하며, 외적 소명이란 교회의 법질서를 따라 모든 시험이 다 통과되고 그리스도 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이르게 됨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내적 부르심은 그의 외적 부르심에 의해 확정이 되게 된다. 목사는 교회의 주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선지자적 직책

목사의 직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치리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며 청소년을 교육하고, 양무리를 살피고 돌보는 목자적 활동 등이다.

이상 나열한 모든 직책이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목사의 직책중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곧 설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수종드는 자라고 한다. 교회내에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례의 집행만이 목사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목사직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다. 목사는 설교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만이 설교자이다. 그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례를 집행할 권을 가지



는 것이다. 말씀을 동반하지 않는 성례는 공허한 것이다.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증거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그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 그의 선지자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목사를 불러 세우신 것이다.

이에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불러쓰시지 않고도, 그의 택하신 백성을 모으고 그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봉사물 통해서 그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가 나타난다. 그가 죄인을 찾아 오시되, 우리와 같은 그 자신의 두려운 음성으로 찾아 오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하여 자비스럽게 인간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이다.

목사가 본질상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이 없다. 다른 이들과 함께 흠

에 속한 자요, 죄인이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의 구원의 말씀의 증거의 직임을 맡았다는데 그의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이다. 그러기에 칼빈은 목사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였다.

목사는 “하나님의 입”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입”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책임있게, 성실하게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바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 오늘 소위 목사들 중엔 예화와 휴머등으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웃기고 울리는 일로 강단을 남용하는 이들이 많다.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은어나 속어들을 강단에서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필자는 이곳 주변 한인 교회로부터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한국의 대부흥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는 광

고지를 받은 일이 있다.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것이 설교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강단에 등장하는 소위 목사는 선성한 강단을 회곡의 무대로 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전도자들 가운데 이런 웃기고 울리는 설교자를 찾아볼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요, 왕의 왕되신 그리스도의 멧세지이기 때문에 웃기면서 전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것이다. 설교는 영원한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이기여 휴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Dr. D.M. Lloyd-Jones) 목사가 그의 서거하기 얼마전, 기독교잡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강단에서 휴머가 없는데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강단이란 인간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멸망에 관계된 그리스도의 멧세지를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곳인데 어떻게 휴머를 생각할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그가 영원한 생명과 사망에 대한 왕의 멧세지를 증거하는 그의 사신이란 의식을 한 순간도 버려서는 안된다. 목사가 이렇게 함으로 그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선지자적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처럼 사회 환경이 복잡한 때에 목회 상담등 목사의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목사 직임의 핵심은 언제나 설교에 있다. 이 직임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목사는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 앞에 그의 직임의 가장 큰 몫을 이행한 자로서의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생각한대로 설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인간 영혼의 영원한 생사에 관계된 멧세지이다. 그러니 누구나 다 설교자로 등장할 수 없다. 설교자는 그 직임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곧 목사만이 설교자인 것이다. 혹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후보생이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교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증거는 설교라 부르지 않고 ‘교훈적인 스피치’라고 부른다. 이는 너무 형식에 매인 인상을 주지만 얼마나 개혁교회가 설교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이해를 해야 한다.

개혁교회에서는 치리장로 혹은 집사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설교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교회에 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휴가중에 있을 때에는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되, 본 교회 목사나 혹은 같은 교파 자매교회 목사의 설교를 읽게 된다. 아무리 신학지식이 깊은 장로나 교인이 있어도 설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에게만 허락된 영역인 것이다. 목사의 설교를 읽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도 건조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로가 목사의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읽는 데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유익을 얻는다. 설교를 읽는 예배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에 등한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나 혹은 어떤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며, 성도들과

의 교계속에서 그리스도의 멧세지를 받고 예배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설교를 읽는 예배라 해서 신자들이 예배참석에 등한하지 않는다.

설교는 목사의 특권영역이다. 주께서 목사를 불러 세워 그의 교회를 위한 그의 선지자적 직무를 맡기신 때문이다. 한국 교회도 차츰 설교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할 때가 온 줄 안다. 물론 한국적인 교회의 특수상황이 있다. 전도사와 전도인이 필요하다. 이들의 복음 전도가 교회 확장과 건설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도사들의 전도소나 혹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복음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이들 대부분의 내적 소명을 받고 목사직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설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누구에게라도(장로, 집사, 주교 교사등) 강단이 허락되고 이들의 스피치를 설교라는 범주속에 다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다.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사 직분과 그의 직임인 설교에의 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고 해박한 지식과 능변을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아 법적으로 세움을 받지 않는 이상 누구도 그리스도 교회의 설교자로 등장해서는 안되고, 이를 또 교회가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어떤 분이 법학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의 학위를 가점으로 판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관제 당국으로부터 판사로 법적인 임명을 받기전에 판사의 직책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다. 개척교회는 교회법을 따라 목사로 부름

을 받지 않는 자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를 그리스도 교회의 분규자로 생각한다. 물론 신자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다. 그러나 교회의 설교란 이와 범주를 달리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신자들이 복음 증거할 사명을 가진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책을 받는 자만이 복음을 삶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로, 또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로, 주의 이름으로 권위있게 설교할 수 있다'는 바빙크 박사의 견해는 성경적이라 본다(H. Bar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V. 410-415).

중부산노회 <상설> 교사연수원

◆제1기1학기 모집요강◆

- * 개강일시 : 84.3.5. 오후 7시
- * 장 소 : 거제교회당
- * 수강자격 : 각급주교교사
- * 접수 및 문의처 : 862-1242
(사무실)
522-9001
(교육부)
- * 교과과정 : 3.5-4.5매주 월, 화, 목
오후 7시 - 10시 (4교시)
(15과목 60시간 수료함)
- * 특 전 : 수료증 및 교사자격증 수여
- * 원장 (노회장) 김중환 목사
- * 교무 (교육부장) 조상희 목사

기 고



신앙인의 학문 활동

이 보 민
고신대학교수·물리학

새 학기에 새로이 학문을 연구하고 자 대학에 모여서 대학생 활을 시작하게 되는 신앙동지들이 우선 부닥치게 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신앙인이 그 학문을 어떻게 보며 또한 중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코 지금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며 그렇다고 분명한 해결이 이미 주어진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이것은 항상 모호한 문제가 되어 왔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사실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특별히 학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만큼 학문의 범위가 넓어진 듯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학문이라고 칭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보편화 된 듯 하

기도 하다. 학문이 이런 식으로 보편화 될 때에 크게 부각되는 어려운 문제는, 이들 학문들은 모두가 개개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것인가, 즉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학문들은 다같이 어떤 공통점 아래서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옛날부터 학문에는 어떤 갈등이 있어왔던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신앙인은 이런 문제를 지니는 학문이라는 것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학문들이 자기 다양한 성격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 이와 같은 학문들을 하나의 원리로서 보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본래 중세 때에 천주교의

교회의 직분 (II) - 장로

허 순 길
호주자유개혁교회목사

장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기 위하여 그가 불러 세우신 직분이다. 하늘에 계신 교회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사신 지상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기 위하여 장로를 불러세워 그의 왕직을 수종들게 하시는 것이다.

장로 직분 제도는 개혁주의 교회인 개혁 교회와 장로교회의 힘ियो 그 보루이다. 장로 없는 개혁주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장로 없는 개혁주의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다. 중세대에 이 장로의 직분은 인간의 교권육에 희생이 되어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목사의 직분은 성례의 집행권과 직분의 안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직으로 상승을 했고 장로의 직분은 성례집행만을 할 수 있는 감독의 보조자인 신부로 전락의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

회의 주되신 그리스도는 그의 종들을 통한 교회의 개혁을 통하여 이 직분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켰다. 특별히 이 일에 수종을 들게 된 종은 루터의 공이 컸지만, 특별히 교회에 성경적인 직분을 바로 회복케 한 분은 칼빈이었다.

소명 장로는 그리스도 자신의 왕권을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로이 교회의 장로로 등장하여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수종드는 자로 그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것 처럼. 장로는 그의 왕적 직분을 수종드는 자로 그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은 직접적이 아니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방편을 통하여 그의

수종자를 부르시는 것이다. 곧 그는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먼저 자격을 갖춘 자들을 찾아내고 그다음 교회의 성도들의 선거를 통하여 직분자를 불러 내시는 것이다. 당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교회신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배후에는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으로 누구든지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신자들 중에는 교회를 섬길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직분을 사모할 수 있다 (딤후 3:1). 그러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곧 주의 부르심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소원은 잘못된 동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주께서 법적으로 부르시는 때를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종의 직분을 사모하는 지나친 열심때문에 교회내에 불화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불행한 경우도 있어왔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 될 자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그가 법적으로 부르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직무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종들므로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것이다. 개혁 교회 헌법엔 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함께 목자적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장로들은 목사와 동료장로들과 집사가 그들의 직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

다. 장로들은 교회 건설을 위해 유익이 될 만큼 자주 가정 심방을 하되 일년에 적어도 한번은 해야 한다.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 권징을 시행하며 교회의 모든 일들이 품위있고 질서있게 행해지도록 돌보아야 한다 (Art. 21). 이 내용은 한국장로교 헌법 정치가 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원리적으로 비슷하다 (24조).

양 법이 언급한 공통적인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행정과 권징이다. 그러나 개혁교회 정치 조문에는 장로교 정치에서 말하지 않는 두어가지 구체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직분자 상호간의 감독과 가정 심방에 대한 독자적 의무에 대한 것이다.

상호감독 장로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서로 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교회내의 세 직분 곧, 목사, 장로, 집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맡아 각각 수종들고 있다. 이 세가지 직분자들은 그 직무는 다르되 모두 그리스도에 속한 직분을 수종들고 있다. 여기에 직분 상호간의 일치와 연대성이 있다. 이 세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곧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직분)을 수종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의 위나 혹은 아래에 있다는 교권적 관념에서 생각할 수는 없다. 직분자들은 서로를 살피며 직무를 이행해가는 일에 부족이 발견될 때는 형제답게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주의 교회 건설에 수종들 것이다.

개혁 교회는 이 원리를 따라 당회

에 규칙적으로 상호권징(Censura Morum)의 기회를 갖는다. 교회의 당회에 따라 그 빈도는 다르다. 이때에 목사는 당회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분을 이행해 감에 있어서 충고나 권면할 일이 없느냐고 묻게 된다.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당회에서는 매 3개월마다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당회원 사이의 불화의 가능성이 제거되고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데 충화를 이루게 된다.

가정심방 개혁교회는 장로의 가정 심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로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하여 유익이 될 만큼 자주 심방을 하되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매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정치에도 장로가 교인가정을 심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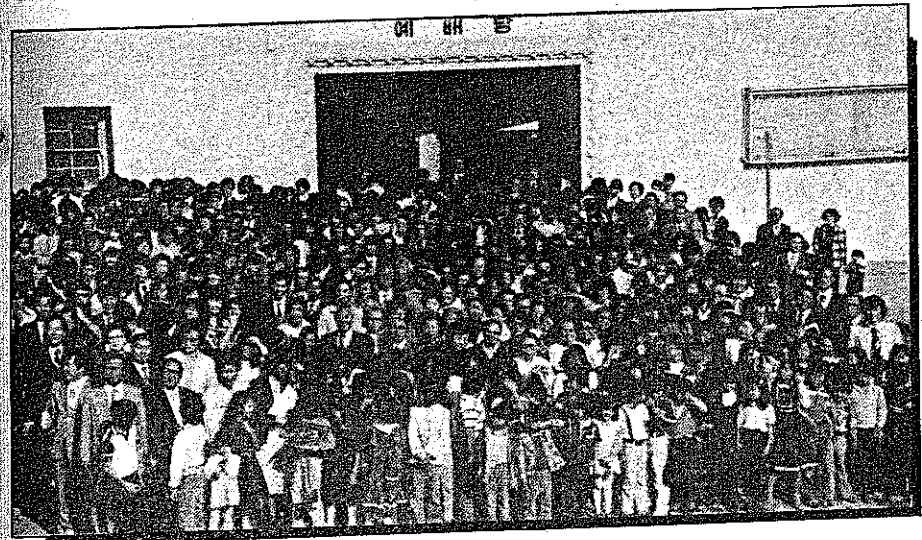
장로는 다스리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목자적 관리와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장로는 신자 가정의 심방을 통해 신앙 생활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토론하며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인도하는 것이다. 개혁교회에서는 가정 심방은 목사의 직무라기 보다는 장로의 직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장로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의 가정을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공식 방문하고 있다.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에는 10명의 장로가 2인씩 조를 이루어 각조가 약 30 가정을 맡아 심방하며 돌보고 있다. 당회는 매월 한번씩 각 구역의 장로들의 심방 보고를 받고 토론하며 어려

움을 발견할때 지도방안을 함께 연구 토론하게 된다. 목사도 물론 심방을 하며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 한다. 목사는 주로 병자와 의로운 신자들을 심방하고 장로들의 보고를 듣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이 가정들을 심방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무중 가정 심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개혁 교회 장로직은 결코 명예직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직분을 받아 그의 교회를 위해 수종드는 행동하고 봉사하는 직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인의 대표?

장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직분이다. 그가 교인 중에서 교인들의 선택을 받았다 해서 교인들이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고 교인들의 대변자가 아니다. 그는 엄연히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에게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직분 자이다. 한국 교회 내에서는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목사는 일시 개교회에 고용되는 직분이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 당회에 교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라는 잠재 의식이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목사, 장로 사이의 긴장 문제를 종종 듣게 된다. 상당한 수의 교회에 목사 장로간의 긴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교회에 특유한 불행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왜 목사와 장로사이에 긴장 문제가 있는가?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러한 현상이 많다는 것은 직분에 대한 견



해가 잘못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장로교 정치에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14조, 24조).

장로직에 대한 이 표현이 장로 직분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심어 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표현은 한국교회가 미국 장로교 정치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런데 장로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세계 장로 교회중 오직 미국 장로교 정치 뿐이었다. 장로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정치편”이나 장로교 정치의 터를 처음 잡아 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제 2 권징서”등에도 “장로가 교인의 대표”란 표현을 찾을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미국 장로교회가 장로 교정치사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장로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인 면에서 추론할 수 있

다. 17, 18세기 식민 시대의 미국교회는 상당히 복잡하였다. 당시 미국 동북지역에 정착한 교회는 주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였다. 이 두 교회가 교리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서로 달랐다. 회중교회는 이름 그대로 교회 직분인 목사 장로에 의한 교회 정치를 인정치않고 교회 회중의 정치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전 교인이 모든 교회 행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 교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교회를 다스린 것이다. 곧 회중교회의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였다. 이들은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치리한 것이 아니고 교인의 대표자로 교회를 치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교회 정치를 민주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당시 상당한 세력을 가진 이 회중교회와 합하게 되었다. (1801 The plan of Union). 그 결과 당시 장로교회는 회중교회의 정치적 요소를 많이 받아 들이게 되었다.

이 때 회중교회와 결혼을 하게된 장로교 정치 체제를 역사가들은 장로교회중 체제 (Presbygational System)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받게 된 회중교회 정치의 영향에서 온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근년에 개정된 미국 장로교 헌법정치는 이 표현을 모두 제거함으로 장로교 직분관을 순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정된 미정통 장로교 (O. P. C.)와 미국 장로교 (P. C. A.)의 정치에서 장로에 대한 이 표현을 찾을수 없다. 한국 교회 정치도 재정비할때가 온 줄 안다.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성경적인 교회 개혁을 시도하는 여러 장로교회들은 근년에 교회 정치를 재정비하였다.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고 표현한 것이 그릇되었는가? 이는 분명히 역사적인 개혁주의 직분관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라고 본다. 첫째 : 이 표현은 장로의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불러 그의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이라기 보다는 교인들의 대변자라는 관념을 갖게 한다. 둘째 : 이 표현은 교회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라는 관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기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정치는 결코 민주 정치도 아닌 과두정치도 아닌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들고 그의 말씀을 절대적 법으로 하는 그리스도 왕정 (王政)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로를 교인들의 대표로 보는 견해가 교회의 직분자 세계에 이원적인 관념을 갖게 함으로 목사 세계와 장로 세계에 긴장 관계를

가려하는 계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 한국교회내에 목사 장로간의 긴장 상태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주의 교회 세계는 이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히 직분 세계에 이원론이 용납되지 않는다. 장로는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 교인들에게서 오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할수 없다. 장로교 정치는 먼저 목사, 장로 양 자가 다 기본적으로 장로라고 밝히고 있다 (14 조). 목사, 장로가 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의 임명을 받아 교회 앞에 봉사자로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는 단순히 교인의 대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분인 것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 곧 목사, 장로, 집사는 3중 직분자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의 직분을 자기 수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사이에 서로 나눌 수 없는 연대성이 있다. 직분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직분을 섬기는데서 하나다. 그러므로 당회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한 서로 떨어질수 없는 동역자인 것이다. 교회내에 직분자간의 긴장과 불화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안에 세 직분간의 불화란 생각 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기고

성경은 낙태를 허용하는가?



Robert H. Kyle
복음병원신경외과과장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왔지만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임신 즉 잉태의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된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태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욥은 그가 잉태되던날 그 순간부터 그의 생명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과 사역을 시인했다 (욥 3:3).

시편 기자 다윗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3 ~ 16) 라고 함으로써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 부터 시작했다고 확신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의 사역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웠음을 말하고 있다. 이같은 태아생명의 실질성에 대한 주장은 세례 요한과 주님이 각각 그 모친들의 뱃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눅 1:15, 41, 44) 야마도 이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상의 증

교회의 직분 III

허 순 길
목 사
호주자유개혁교회

한국에 오랫동안 복음 전파에 봉사해 온 선교사 한 분이 "한국 장로 교회는 장로 교회라기 보다는 집사 교회"라고 말했던 일이 기억난다.

이는 그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의 수보다 엄청나게 많은 집사의 수를 보고 한 말인 줄 생각한다. 이것을 생각없이 내뱉은 비판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로 받아들여져야 될 줄안다. 물론 단순히 집사의 수가 많은 것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교회에 집사의 직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바로 되어 있으며, 교회가 집사 직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 만큼 많은 집사들을 임명하고 있는지는 것이다. 집사 직분은 목사, 장로와 함께 종교 개혁과 더불어 되찾게 된 교회의 성경적인 직분이다.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답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바로 이해되고 세워져야 할 것이다.

집사직의 본질

집사직의 본질은 그 직명의 기원에서 찾게 된다. 집사라는 말은 원래 "섬기는 자"를 뜻하는 희랍어(DIACONOS)에서 왔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말씀의 봉사자", "자비의 봉사자"라는 말들에 쓰여져 왔으나 차츰 특수한 직분의 직명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곧 이 말은 교회내 자비의 봉사직에 대한 직명이 된 것이다.

집사직의 본질은 이 직분의 기원을 생각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집사직의 효시는 사도행전 6:1~6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성경 본문이 밝혀주는 것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교회 치리에 분주했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에 등한하게 되어 성령의 인도로 일곱 사람을 택하여 세워 예루살렘 교회내의 구제 사역을 맡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에서 시작된 직분은 곧 다른 교회에도 소개 되었다(빌1:1).

이 직분의 본질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사 직분이 어떤 면으로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느냐는 것이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이 집사 직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자, 왕, 제사장직분 가운데 그의 제사장 직분을 받들게 된다. 그래서 집사들은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의 교회에서 대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신약에 집사직의 본질을 완전히 밝히는 구절은 없다(비교: 행6:1~6, 딤후3:8~10). 그러나 집사직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자비를 수종드는데 있다는 사실 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볼 때 2세기경에 벌써 집사직분의 변질을 가져왔다. 초대 교회에는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였다. 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비교: 행20:17~28, 딤후1:5,6). 그런데 2세기 중에 몇 장로들이 감독이라는 직명을 자기들에게 전용하여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다른 장로와 집사들은 그들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결과 감독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에 비교가 되는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고 장로들은 일반 제사장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집사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의 지위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때도 처음 집사들은 자비의 사역에 봉사 했었

다. 그러나 때가 지남에 따라 이 사역은 수도사들이 맡게 되고 집사의 직분은 그 본질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집사는 로마 교회내에서 성례를 집행하는 일을 돕는 보조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영국 교회도 이 관습을 따르고 있다. 집사 직분은 칼빈에 의해서 성경적인 자비의 직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여 집사

개혁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자 직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집사 제도를 갖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 입장은 개혁주의 전통을 지켜오는 모든 장로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현대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여집사 제도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는 여목사, 여장로 제도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의 이 현상은 분명히 현대 여성 해방 운동의 직접 간접영향의 결과라고 보게 된다. 오늘날 자유주의 계통 교회에서의 여성 해방운동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남성위주의 문화 배경 아래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는 이 여성 운동가들로부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격은 부성보다는 모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여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주기도를 수정해야 하고 초대 교회로부터 고백해 오던 사도신경도 수정해야

되는 것이다. 현대 교회가 여성 직분을 받아 들이는 배후에는 이런 인본주의 여성 해방운동의 사상이 배경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집사 제도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학적, 주경학적 입장에서 전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유주의 교회들이 여성 직분제도를 받아 들임에 따라 개혁주의 교회 신학자들은 다시 성경적인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토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얻은 결론은 부정적이다. 딤후3:11의 내용과 롬16:1에 여성도 뱌뵈에 대하여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 말이 "집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말이기애 초대 교회에 여집사가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여성을 집사로 뚜렷히 세운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도 뱌뵈나 딤후3:11에 언급한 "부인들"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헌신적인 여성들로서 비공식적인 자격으로 집사들을 돕기 위해 임명된 여성도들 이었다고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

이에 우리는 자연히 한국 교회의 여집사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한국 교회가 도입한 여집사 제도는 현대의 여성 해방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한국 교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설명되어야 할 줄 안다. 한국은 초대교회로부터 그 성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특별히 교회를 위한 여성 봉사를 요구하게 되어,

여집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곧 여집사 직분을 평생직으로 보지 않고 임시적으로 본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인력이 빈약한 남자 집사(장립집사)를 도우는 보조자들로서 임명했음이 틀림없다(교회정치 15조 참조). 한국 교회가 취한 이 입장은 앞서 언급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여성 집사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내린 결론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그 동안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전통과 현실이 이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개혁주의 교회가 종교 개혁 이후 종종 여집사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식적인 여집사직에 대하여는 성경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비공식적으로 집사들의 일을 돕거나 병자들을 돌보는 여성의 봉사를 높이 평가하여 왔다. 신구약 성경은 비상한 시대에 특수한 직분이 남녀 양편에 다같이 부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사시대에 여선지 드보라와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때에 여선지 만나들을 들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내에 공식적인 여성 직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성경에 여성은 언제나 남자들의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협조자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부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었다. 또한 교회 역사상, 부인들이 교회의 여러 기관을 통하여 놀라운 봉사의 흔적을 남겨 놓은



교회에서의 집사의 직무를 궁핍한 자를 대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여성 직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코 남녀 가치의 차별 의식에서가 아니라 교회내에서의 남녀 활동의 기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진리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이미 언급한 대로 궁핍한 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개혁교회정치 제22조에는 집사의 직무에 대하여 "집사의 직무는 자비의 봉사를 이행하는 것이다. 집사들은 궁핍한 자들을 방문하고 도우며 격려할 것이다. 그리고 구제금을 모으고 이를 관리하며 서로 협의하며 궁핍한 자들에게 이를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 교회 정치 제 27조는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를 협조하며, 빈곤한 자를 구제하며 교회의 서무,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 양교회가 규정한 집사 직무의 공통된 점은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데 있다. 교회에 집사 직분이 처음 세워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행6:1~6) 집사의 핵심되는 직무는 서무도 회계도 아니고 구제이다. 궁핍한 자들은 옛날 예루살렘 교회 뿐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도 있다. 흉년 혹은 경제적 불경기로 인하여 실직 혹은 병고로 인하여 빈곤에 사는 사람들이 늘 있다. 또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움과 빈곤에 사는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 내 교회와 내 나라 안에 빈곤이 사라졌다고 하자, 이 땅위의 다른 교회와 나라에는 빈곤에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나아가서 기회 있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갈6:10).

개혁교회의 집사들은 구제의 사역을 집사 직무의 본질로 알고 봉사하고 있다.

또 교회는 그들이 하는 일을 연보를 통해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곳 교회의 예를 들면, 매주일 한번의 헌금은 구제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사회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의 교회에 집사들의 할 일이 있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도 형편을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언제나 있다. 죄악의 그림자가 머무는 세계에 살고 있는 한 빈곤, 병곤 등의 인생고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이다. 집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을 살피 도와주고 위로하며 격려한다. 그런데 구제의 내역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밀이 지켜지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상당히 많은 수의 집사들(주로 서리집사)을 해마다 임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교인의 1/3쯤이 집사로 임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시무하는 이곳 교회는 650명의 교인중 장로가 10명, 집사가 3명이다. 이 형편에 비교하면 한국 교회의 집사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집사들(장립집사)이 많은 협조자들(서리집사, 특별히 여집사들)의 도움을 얻어 그 직무를 이행할 때 더욱 효과적인 구제 사역을 교회내에서 이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사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하고 있으며 교회 전체가 그들의 직무 이행을 위해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느냐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 생활은 성경의 가르침의 표준을 따라 항상 현실을 살피 비판하고 개혁해 가는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완전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자라가야 한다(엡4:13~14).

교회내에 빈곤한 신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다. 이 의무 이행을 위해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집사 직분을 주셨다. 초대 교회로 부터 참된 교회는 이 구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 교회가 이 의무를 다 할때 개혁주의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바른 "상"을 들어내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대선지자인 그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 바로 증거되고 장로들을 통해 그의 왕적 통치가 시행되며, 집사들의 구제 활동을 통해 그의 대제사장적 자비가 나타나야 한다. ✠

時 論

기 고

신앙생활과 조상숭배

이 용 호
송도제일교회목사

지난 1983년 12월6~31일까지 대만 대부시에서 조상숭배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세미나에는 9개국에서 102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금년 1월 12~14일까지 서울 강남지역의 5개 교회를 중심으로 조상숭배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문제가 제기되며 이론의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세미나들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조상숭배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하리라 생각되어 지면을 빌어 요약 정리할까 한다.

제사의 기원

언제부터 제사제도가 이 땅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대부분 원시적인 종교에 그 기원을 두는 것이 정설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원시적인 제사의 형태가 있었고 고대 중국의 상나라나 한나라 때에도 이미 제사제도는 있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제사제도는 죽은 부모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황제에게 하는 제사였다. 그러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민도 명당에서 제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사제도에 이론적 뒷받침을 하게 된 것은 12C에 이르러 주희(朱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는 특별한 왕에게 제사를 하였으나 민중들 사이에는 성행되지 않았다. 특히 불교 국가에서는 제사가 있을 수 없는 법, 고려시대에도 처음에는 제사가 강조되지 않았으나 점차 불교가 사마니즘과 결탁하면서 고려말에 이르러서 곳곳에 사당이 세워